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농촌 일손도와

기사입력시간 : 2022/06/22 [14:54:00]

한광숙 기자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김상철 부장 등 11명은 남해군 이동면 난은리 김홍수 씨를 비롯 3세대에 마늘수확 일손돕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손옥용 지사장은 “남해군은 마늘 주산지로 마늘 수확기인 요즘 일손부족으로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더운 날씨임에도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준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 감사드린다”며 “농가 일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많은 단체에서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